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28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세션 28, 시편 편집입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루면서 우리는 시편과 왕실 시편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편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혜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시편의 편집 과정을 살펴보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각 부분을 살펴보았으니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배움과 이해를 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힘과 에너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시편의 제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편이 수집되어 정경으로 최종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에서 이 책들을 구성하는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편은 실제로 다섯 권의 책입니다.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를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 자체에 대한 제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책들은 오경에서 첫 번째 단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는 베레시트(Bereshit)이고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름을 뜻하는 엘레 쉘모트(Eleh Shemot)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쉘모트(Shemot)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는 주님이 부르신 바이크라(Vayiqra)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편 4편의 첫 절에 광야에 있었던 바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목이 됩니다. 숫자는 '의'라는 단어인 Devarim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경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시편 72편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말하는 앞부분이 언급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전 모음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의 초기 단계의 달걀 껍질인 것 같습니다.

유대 문학과 랍비 문학에서 이 책의 제목은 Zephyr Tehillim이다. Zephyr는 책을 의미하고 Tehillim은 칭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테힐림(Tehillim) 또는 찬양의 책을 의미하는 구성 형태인 테힐림(Tehillim)으로 축약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우리가 말했듯이 거의 모든 시편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양편이 없는 유일한 시편은 시편 88편이다. 시편 88편은 시편의 흑양이라 불린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찬양 부분이 없는 시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참고사항입니다. 한때 나는 매우 피곤하고 낙담했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시편에는 기도할 힘이 있고 그 자체로 구원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찬양인 시편 전체가 있고,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애가의 시편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찬양서』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칠십인역에서는 그것을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찬송가입니다.

시편이라는 제목은 실제로 70인역의 주요 코덱스 중 하나인 Codex B라고 불리는 Codex Vaticanus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연대는 대략 350에서 400 사이입니다. 그 제목은 시편입니다. 이는 시편 머리말인 다윗의 시편을 음역 또는 번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단어는 미즈모르입니다.

그것은 시편모이(Psalmoi)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코덱스에서는 시편(Psalms)이 됩니다. 서기 400년경의 알렉산드리누스 코덱스(Codex Alexandrinus)에서는 Psalterion이라고 불립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Psalter라는 이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 영향으로 인해 이 책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시편(Psalter)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롬은 그것을 번역하면서 그것을 레바 시편(Leva Psalmorum), 즉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말을 그리스어 시편(Psalmoi)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책은 시편이라고 불리며, 기술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편이나 미즈모르는 현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책에서 찬양의 음조가 너무 강해서 시편은 이제 현악기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므로, 찬양의 음조는 너무 강해서 시편이 찬양의 노래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 제목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제목, 랍비 문헌, 그리고 그리스어 성경 바티칸 코덱스에서 시편모이(Psalmoi)라고 칭찬하는 후속 히브리어 문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Codex Alexandrinus)에서는 Psalterium이라고 불리며 영어에서는 Psalter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Jerome은 그것을 Leva Psalmorum 또는 간단히 Psalmoi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뜻해야 하는데 성스러운 노래나 찬송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서 드디어 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온 책의 제목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단계는 책이 어떻게 뭉쳐졌는지, 수집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빗방울이 샘이 되어 작은 개울이 되는 방식으로 그 수집을 생각할 수 있다고 잘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작은 강으로, 더 큰 강으로,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별 시편으로 시작해서 수집되고, 마침내 정경이 될 때까지 책으로 수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책이 완성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단계는 개별 노래나 개별 시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는 실제로 성전을 위해 작곡된 것, 즉 찬양의 시편입니다.

찬송가는 아마도 성전을 위해 작곡되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희생을 동반하는 감사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와 함께 찬양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는 성전을 위한 애도였으나, 다윗의 애도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서 작곡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울과 다툼을 벌이고 광야에 나갔을 때 시편 7편을 쓴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성전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그가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고 글을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가 지은 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편이 수석 연주자에게 넘겨지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도시조차 악사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수석음악가는 그것을 민주화를 위해 채택했다. 다윗을 개인적으로, 왕을 위해서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시편을 부를 수 있게, 적어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시편을 부를 수 있도록, 왕이 시편을 부를 수 있도록 민주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시편을 낭송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반대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노래하게 하고, 백성이 노래하게 하고, 왕이 노래하게 하고, 아마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위한 개인 시편이나 성전 밖에서 애도하는 시편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성전에서 채택되어 사용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있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제가 쿼란 두루마리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 자세합니다.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세 번째 단계는 그룹으로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섹션에서는 어떤 그룹으로 수집되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별로, 장르별로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난점 중 하나가 바로 엘로힘 시편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참고해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별 그룹화와 기타 그룹화 기술인 다른 기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기술들 중 일부를 살펴봅니다. 나는 시편 편집을 다룬 Brevet Childs에 대해 작성된 Gerard Wilson의 Yale 박사 학위 논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참고문헌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집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그룹으로 나누고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다섯 그룹, 다섯 권의 책으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경 그 자체, 즉 마소라 사본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구약성서의 정경과 그 다음에는 성경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룹으로 수집되는 방법의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율슨은 설형문자 평행선을 통해 판단하기 위해 수집 과정이 기원전 2334년부터 2279년까지, 즉 그리스도 이전, 아니 그 이전에 일찍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의 증거는 이 그룹화가 시편 형성의 역사 초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룹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대기에는 두 명의 저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삽을 시편의 두 주요 저자로 이야기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는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다윗과 아삽의 손 아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아삽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손으로 음악을 디렉팅했던 Chironomy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과 아삽의 손에 의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며 시편 1편과 2편, 3편부터 41편까지의 서론이 모두 다윗이 쓴 것 이후에 첫 번째 책 전체가 있습니다. 그 모음집에는 익명의 시편이 두 권 있습니다. 그들은 10세와 33세입니다.

10편은 원래 시편 9편의 일부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33편은 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고아한 시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즉 다윗의 시편은 제2권 51권부터 65권까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68부터 70까지입니다. 그리고 72권에는 제2권을 닫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은 다윗의 모음집과 함께 바람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편집 공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3권과 제4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각주 477번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편을 수집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저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요 컬렉션 중 하나는 David의 소장품이거나 David의 소장품입니다. Korach의 아들들에게 속한 또 다른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는 책 II와 III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는 제2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고, 42편, 43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는 엘로힘 시편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점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한 제3권 고라 자손의 시편은 이번에는 84, 85, 87, 88편이다. 아삽의 시편은 50, 73부터 83편이다.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은 90편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르별로도 수집됩니다. 그래서 무어 씨가 시편을 편찬하여 일부 모음집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3에서 6, 19에서 24 등의 작은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에서 미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슬기롭다거나 능숙하게 만들라는 뜻으로 마스길이라고 불립니다.

위 첨자 중 정확히 일부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Maskil 42, 43부터 46, 52부터 55까지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저자 컬렉션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작은 컬렉션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 번째 그룹은 소위 Elohist Psalter입니다. 엘로힘 시편은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이 42편의 시편 이외의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의 주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훼 또는 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의 이름이기 때문에 엘로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AM 또는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대문자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르독이 바벨론의 개인적인 신이었던 것처럼, 야훼는 이스라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나라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은 그에게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그분이 그들에게 남편이 되시고 그들은 그에게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이름이 I AM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 시편에서는 주된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즉 만유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아니면 어머니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는 뜻으로 그분의 이름 야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통계를 제시합니다. 엘로힘 시편은 42편부터 83편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편부터 41편과 84편부터 150편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Yahweh)가 있습니다. 584번 발생합니다.

그러나 엘로힘 시편에는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 그 시편들에는 '나'라는 이름이 584번 나오고, 단순히 하나님인 엘로힘이라는 칭호가 94번 나옵니다. 그러나 엘로힘 시편에는 나(I AM)라는 이름이 45번 나오고, 엘로힘(Elohim)이라는 이름이 210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성한 이름의 매우 독특한 집중이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체 이름의 사용은 대부분 병렬 처리에서 발생합니다. 즉, 야훼와 평행한 존재는 엘로힘이 될 것입니다. 이 엘로힘 시편 이외의 다른 책들에서 야훼는 일반적으로 A절 세트에 있고 엘로힘은 B절 세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 시편에서 엘로힘은 A절 세트에 있고 야훼는 B절 세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42권의 책에는 매우 독특한 배역이 있습니다. 사실, 엘로힘 시편 외부와 엘로힘 시편 내에 나오는 공관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을 드립니다. 시편 53편에서 주님이나 야훼 대신에 엘로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작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악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죄인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시편 14편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이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온 인류를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것이라. 어떻게 주님이 A절 세트에 계시고, 하나님은 B절 세트에 계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모두 부패해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악자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너희 행악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나 그들의 이름을 주목하라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요새를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구원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라. 이제 여기에 엘로힘 시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윗은 남자다 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했고 그들의 길은 사악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시편 14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하였음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인류를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 것을 읽습니다.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모두 부패해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악자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편 14편에서는 그들은 결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공격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구원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의 이름에서 만물의 초월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보다 추상적인 일반적인 용어로 이름이 매우 의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Wellhausen에서 이것이 모두 JEP D와 같은 E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오경, J, E, D가 오경에만

있는 방식이거나 Von Rad와 같은 일부의 경우 Hexateuch를 포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호수아도 포함됩니다. 아뇨, 이건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엘로힘 시편을 보면 51편부터 72편까지의 다윗 중심이 있고 두 개의 레위 모음집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했듯이 고라 자손의 42편부터 49편까지입니다. 그다음에는 아삽의 아삽 시편이 73편부터 83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 중심을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양편에는 레위인의 합창단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시편이 42편이고 그 시편이 42편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는 시편 42편에서 시작해서 42편의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한,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숫자 42는 조기 판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가 아이들에게 곰들을 불러내었을 때, 베델에서 그를 조롱하고 조롱하던 소년들이 42명의 소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올라오던 유대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사건에서 유대 사람 42명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42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 시집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 모음집에는 시편 42편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으로 시작하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숫자 42가 심판이나 조기 사망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2장 6절에서는 입다가 요단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복수한 장면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42번이라는 숫자로 처형당합니다.

나는 이미 열왕기하 2장 24절에서 어린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4절에서 아하시야의 친척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은 짐승이 42개월 동안 통치한 후 그가 멸망되고 그 후 7년의 중간에 있는 계시록의 장면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42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42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마도 버넷의 경우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애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87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의 말뭉치인 레위의 말뭉치에는 애도의 시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갱신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정치적 모임집 모두 성전을 떠나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어찌하여 내 영혼에 낙심하시나이까? 우리는 그 시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본 것처럼 그는 성전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거나, 성전에 없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2권의 첫 번째 시편은 성전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권 중 첫 번째 시편인 시편 73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느니라. 나는 하루 종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패배에 대한 공동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시편 44편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도살할 양과 성전을 파괴할 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들고 와서 그것을 찍어 파괴합니다. 시편 74편입니다.

73년부터 83년까지의 아삽 모임집에는 다른 공동 애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79, 80, 83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83편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적들을 처리하시고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는 Joel Burnett의 연구, 2006년 JSOT의 엘로힘 시편 형성의 조직 원리인 엘로힘을 위한 42곡에서 발췌하고 있습니다. 다시, 310페이지의 엘로힘 시편을 보면,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시온의 노래. 따라서 이러한 멸망 가운데서도 같은 모임집에는 죽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부터 89편까지는 엘로힘 시편의 일부가 아니라 제3권의 일부라고 제안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의 부록입니다. 그 모음집에는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인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시편 89편에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다윗 가문의 실패가 있는데,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다윗의 면류관이 먼지 속에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실패를 가장 통곡하는 시편이 시편 89편인데, 시편 84, 87편처럼 시온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소망이 뒤섞인 것 같습니다.

성전의 파괴, 공동의 애도, 악인의 번영, 내가 유배되고, 군대가 패배하며 이 모든 시편이 혼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거기에 섞어서 시온이 하나님의 도시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엘로힘 시편은 당신이 볼 수 있듯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것이 이해에 있어서 최선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시편을 가르쳤을 때, 나는 단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마도 반영하고 있는 버넷의 연구에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파괴와 74편, 79편 등 어두운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서 희망을 주는 시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 다음 나는 죽음과 삶의 결합이 예루살렘과 멸망 이후의 성전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아적 희망을 준다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소선지서 몇 권을 읽어 보았는데, 심판을 정말로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도 항상 희망을 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성경적 패턴이죠, 그렇죠?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예언적 자료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미가의 경우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음, 미가서에서 여러분은 일련의 심판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의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첫 번째 섹션은 1장부터입니다. 실제로는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그것은 영웅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일련의 비난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장 끝에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나오시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장인 3장, 영웅 이스라엘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세 가지 예언, 통치자들에 대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넷과 다섯을 얻으면 회복될 남은 자들로 가득 차서 그들은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노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네게서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자가 상고부터 영원부터 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6장, 7장부터 8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두 비난과 심판이지만, 그 끝에는 승리의 합성곡으로 끝난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건 같은거야. 내 말은, 그것은 설교에도 깔끔한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구절을 통해 설교한다고 해도 희망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른쪽. 응.

왜냐하면 구원이 없다면 시편 기자는 “누가 설 수 있겠으며 누가 건딜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판단일 뿐이라면 그냥 손에 던지시면 됩니다. 글썄, 그게 다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른쪽. 예.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룹화의 또 다른 방법. 그래서 저는 저자별로 그룹화하고, 장르별로 그룹화하고, 야훼가 아닌 엘로힘을 사용하여 그룹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제별 그룹화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다소 동질적인 자료를 함께 모으는 셈족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이 실제로 셈어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 알파벳에서 동질적인 자료의 그룹화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HIJ가 있습니다.

음, HIJK. '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요드(yod)'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K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프(caph)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을 통해 우리 I에 들어오는 Yod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킨다. 그것이 I입니다. K는 히브리어로 caph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바닥을 말하며 그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M이 유래한 히브리어 M과 N에 도달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물을 의미하는 mayim입니다. 그리고 수녀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Q와 R, Q는 히브리어 qoph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 뒤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R은 머리 앞부분을 뜻하는 resh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생각이 함께 그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랍비들이 수집한 것 같습니다. 시편 수집가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동일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3편부터 6편까지 보면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번갈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을 보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시편 4편, 나는 밤에 잠을 잡니다. 시편 4편에 그는 파수꾼처럼 아침에 하나님께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6편에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밤, 아침, 밤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는 자료를 그룹화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제라는 말은 가르치는 내용의 의미 측면에서 주제뿐만 아니라 은유, 공유된 은유,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응.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응. 좋아요.

응. 시편 7, 8, 9편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로 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시편과 뒤에 오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7편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7장 17절에는 내가 여호와와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에게 감사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시편 8편은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8절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반복됩니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시편 9편으로 인도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7.17과 매우 유사한 지극히 높으신 분,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하나로 모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를 세우시는 그분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즉위시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또한 그분의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것들을 결합하는 다른 방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칩셋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과 104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과 104편은 둘 다 동일한 문구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송축하라 또는 내 영혼이여 나는 송축하옵소서. 내가 여기에 말한 다른 기술의 또 다른 방법은 독특한 제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모음집 중 하나는 승천의 노래(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상승을 의미하는 알마루트(Alma Rut)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일부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인 합의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일년에 세 번 그곳에 갔을 때 순례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캐치프레이즈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편 1편과 2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시편 1편이 축복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이 축복으로 끝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였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토라를 묵상합니다. 시편 2편은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묵상하는 것을 말하고, 2장 1절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둘 다 3장 6절과 4장 8절에서 '내가 눕고 잔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캐치워드나 구 또는 연결로 알려진 단어, 연결 연결 연결은 자료를 그룹화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룹화를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네 그룹이 있으며, 모두 시편 부분의 결론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104와 106은 2권을 마무리합니다. 미안해요, 4권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46부터 150편은 5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17로 끝나는 단원과 음,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상승 시편 다음에 135편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편이 어떻게 합쳐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위한 개인 시편이나 성전 밖에서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거의 즉시 음악 감독에게 넘겨졌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 아삽과 같은 다른 집인 것 같습니다. 음, 그것은 레위가 아니라 레위의 자손이고 고라 사람들 등입니다. 그들은 별개의 하우스이고 이 자료를 하나로 모으는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쓰여진 방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여진 방식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모두 개별적이었지만 어떤 형태의 연합에 의해 함께 모였다는 것이 잠언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상은 실제로 볼 때 더 풍부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엘로힘 시편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그것이 파괴와 그 너머의 희망과 관련된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렐루야 시편은 부분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던 호다님, 감사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결론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호다, 또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세그먼트를 소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어쨌든 개별 시편에서 시편이 모여서 성전에 넘겨지고 성전 찬송을 담당하는 레위 제사장들이 모아서 어떻게 시편을 엮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편을 다섯 권의 책으로 모으는 단계이다. 다섯 권의 책은 첫 번째 책인 시편 1권, 시편 1~41편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시편 42-72편입니다.

세 번째 책은 시편 73-89편입니다. 네 번째 책은 시편 90-106편이고, 5권은 107-150편입니다. 다섯 권의 책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증거는 송영으로 끝나는 이 시편들이 책의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용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송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1권 끝에 있는 송영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송영에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읽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참되다, 진실하다, 굳건하다,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 응답이 아멘, 아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편 72편 끝부분에도 비슷한 송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멘, 아멘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시편 89편과 52절을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4권은 시편 106편과 48절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여라. 그곳에서는 아마도 사제가 부른 마지막 송영과 찬양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송영은 아마도 시편의 원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의 여러 책을 마무리하는 그들의 송영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5권에는 그런 종류의 송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다섯 편의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주님께 대한 순수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시편은 송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들에게 다섯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rowdy의 Midrash 작업과 시편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다섯 권을 준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시편 다섯 권을 주었다.

따라서 이 책들은 첫 단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여'입니다. 2권의 제목은 '마스킬의 지도자를 위하여'입니다.

제3권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제4권, 모세의 기도. 그리고 제5권,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랍비 문헌뿐만 아니라 쿨란의 한 시편에도 실제로 이 송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섯 권의 책에 대한 또 다른 표시는 우리가 이러한 송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음새에서 저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론 이후 첫 번째 책에서 저자는 David이고 이는 첫 번째 책 전체에 걸쳐 거의 내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책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책은 아삽의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모세가 쓴 책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좀 더 인위적인 구분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시편에 다섯 권의 책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적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모세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모세는 기본적으로 컬투스를 주었고 데이비드는 그것을 오페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 문헌에서 모세의 다섯 권의 책과 다윗의 다섯 권의 책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 다섯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 5중 패턴이 카논의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Megalot에는 5권의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 5개를 보는 데 익숙했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응. 음, 구약에서는 메갈롯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편 5권을 갖고 있고 메갈롯 5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섯 권의 책을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히브리어 단어와 책의 리듬 등을 비교해 보면 어느 책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했나요? 책을 쓸 때 다른 리듬을 사용했나요? 아니 아니. 나는 누구도 그렇게 시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와 함께 다섯 권의 책을 넣으려고 1권처럼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 시를 논할 때 여러분은 제가 그 시를 여기저기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와 성서 시, 그리고 수세기 후에 창작된 쿨란 시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자체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료가 모두 1권이라는 것도 다윗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엘로힘의 시편, 이 엘로힘의 시편은 42편부터 83편까지, 즉 42편의 시편입니다.

제 3권이 그 중간쯤에 시작된다는 것이 나에게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다섯 권으로 나눈 것이 엘로힘 시편의 구성보다 늦었다는 것을 나에게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권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로힘 시편은 2권과 3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에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3권이나 4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5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시편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책이 이상합니다. 이는 시편 형성의 초기 단계를 반영합니다. 1권과 3권, 4권과 5권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겔보기에는 1권과 3권이 4권과 5권보다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거기에 모아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발전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료가 연대순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David가 쓴 첫 번째 책은 아마도 이전 컬렉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조금 너무 추측적입니다. 5단계에서는 개별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성전에 넘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일을 담당한 레위인들이 장르별, 저자별, 기타 자료 수집 기술에 따라 시편을 수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다섯 권의 책이 있는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단계는 정경 자체입니다.

이제 학술 과정에서 나는 적어도 쿨란의 정경, 특히 시편 11Q라고 불리는 두루마리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즉, 11번 동굴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번 동굴에서 나온 시편의 첫 번째 두루마리입니다.

마소라 본문보다 시편이 여덟 편 더 많습니다. 그리고 쿨란 두루마리에는 다소 다른 배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쿨란 공동체는 마소라 본문에 보존된 것과 다른 정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패트릭 스케한(Patrick Skehan)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신자이자 유대인 학자인 셰마야후 탈몬(Shemayahu Talmon)입니다. 그들은 쿨란 두루마리가 실제로는 예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성경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에 사용하기 위한 창조물이었지만 실제로 성경으로 간주된 적은 없었습니다. Peter Flint 및 James Sanders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Qumran에 다른 정경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다른 쿨란 두루마리에도 약간의 변형이 있고 그것이 모두 전례에 관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증거가 그들의 해석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정식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쿨란은 약간 일탈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교 내의 독특한 종교 종파였으며 성전과 랍비 유대교를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 다른 카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주었고 이에 대한 각주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시편의 서론은 우리가 해야 할 만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44페이지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정경을 형성하는 의미인 로마 숫자 3이어야 합니다. Delitzsch는 이 컬렉션이 질서정연한 정신의 인상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편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 두 개의 서문시편, 서론인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모두 찬양인 마지막 다섯 편의 시편으로 시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마치 소개와 결론을 주고 아마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최종 형식으로 정리한 편집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책을 갖게 되었고 원래 시편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정경 안에 있는 이 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말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찬양하지만 송영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편집자들은 성전 예배에 사용되는 시편을 회당에서 묵상하는 묵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는 아마도 회당에서의 묵상을 위한 회당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설교에 시편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아마도 설교하기를 원하는 최종 편집자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Janie에 따르면, 사람들의 아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하지 않고, 장황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편이 왕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의 서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은 이 책의 교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가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할 때, 내

생각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토라. 그런데 서문의 일부인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예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외적인 시편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작품인데, 모두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기도를 듣습니다. 시편 2편에는 내 아들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라 하였느니라.

땅 끝까지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주 왕국으로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열방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구하는 왕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책이 될 것입니다. 2권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만 다윗의 기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욥의 말이 끝났다고 말하는 욥기와 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욥의 말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욥은 주요 연설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주된 기도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권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핵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이 대관식 예배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시편 72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주적인 왕의 보편적 통치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시편 72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며 왕에게 주의 공의를 주소서.

왕과 함께 즉시 시작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시편 2편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며 왕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로 끝난다.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심판하시며, 주의 고난 받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게 하소서.

산들이 백성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작은 산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가 백성 중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고 궁핍한 자의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압제자를 분쇄하길 바랍니다.

그가 해와 같이 오래도록, 달과 같이 대대로 지속되게 하소서. 그는 신음하는 들판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기를 바랍니다. 그의 시대에 의인이 번성하고 달이 다할 때까지 번영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에 따른 그분의 우주적 통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주에서의 그의 보편적인 통치로 옮겨갑니다.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사막의 부족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적들이 먼지를 핥게 하소서. 그와 함께 있는 다시스의 왕들과 땅 끝과 스페인과 먼 해변의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원하노라. 스바와 스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노라.

모든 왕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은 왕에게 기도하라는 초대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왕을 봅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우주적이고 공간적으로도 보편적인 왕국을 세우실 왕을 위한 이 마지막 기도로 끝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거의 항상 다윗이 고난에 빠지지만, 마지막에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고 찬양의 서약을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시편에 대해 심판과 그 속에 담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도는 대개 애도나 불평에서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책에 이르게 되면 시편의 가장 어두운 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느니라. 그런 다음 시편 74편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왜 당신은 목사님의 양떼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십니까? 주께서 오래 전에 사신 나라, 주께서 구속하신 기업의 백성,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을 기억하소서. 이 영원한 폐허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이 모든 파괴는 원수가 성소에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만나셨던 곳에서 당신의 적들이 포효했습니다. 그들은 제쳐두고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휘두르며 덩불을 자르는 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해치로 조각된 판넬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소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의 시편도 있고, 성전의 파괴를 애도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시편 88편은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책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그래서 왕에 관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은 왕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72편은 모두 왕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정의의 원인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시편 72편이 우주 왕국을 위한 기도로 끝났지만 89편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와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견고하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위로 하늘에서 굳게 세우셨음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엄청난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찬양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강조한 요점 중 하나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내가 네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대대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암송합니다. 예를 들어, 19절에서 주께서는 환상 중에 주의 신실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사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가운데서 한 청년을 일으켰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부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리라. 반드시 내 팔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리라.

적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를 압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꺾고 그의 대적들을 쳐부수리라

나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두리라.

30절에 보면,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하셨다. . 그런데 35절에서 그는 단번에 33절에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나의 신실함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며 내 입술이 말한 것도 바꾸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거룩함으로 단번에 맹세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의 왕위가 해처럼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궁창의 충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제 애도가 오지만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름부음받은 자에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과의 언약을 버리셨고 그의 면류관을 먼지 속에 더럽히셨으며 당신은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물고 그의 요새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그를 약탈하였고 그는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느니라 당신은 원수의 오른손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윗의 집에 형벌이 가해지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언약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권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유배자와의 다윗 언약의 실패로 끝납니다. 나는 율슨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왕 주변에 있습니다.

제 생각엔 3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편 2편, 72편, 89편에서 그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얻는 곳입니다, 오 하나님, 한 시대가 지났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윗 가문이 실패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산이 생기기 전부터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셨나이다”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즉위 시편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땅에 심판을 가져오실 분입니다. 이는 3권이 유배 기간을 고려하여 쓰여졌다면, 4권은 아마도 유배 기간 중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단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시편 77편인 것 같습니다. 4권에서는 모세가 일곱 번 언급되었습니다. 즉,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초월하십니다. 그들의 존재는 다윗의 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4권으로 끝나는 시편 106편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과 4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사 우리를 열국 중에서 모으시고 주의 성호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은 송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4권의 폐막 기도는 초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들을 열방에서 모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5권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의 첫 구절은 시편 106편의 마지막 구절과 일치합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대적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라. 그가 여러 땅,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모은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열방에서 우리를 모으는 제4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5권이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데려왔을 때 동쪽과 서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땅에서 모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좀 더 메시아적인 시편을 얻게 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해안에서 해안까지 다스리며 땅 끝까지 다스리는 왕이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시편 110편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 시편에 관해 말했듯이, 그 시편은 궁극적으로 그 시편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코스를 마무리하는 좋은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확신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과 모형으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신뢰하게 하시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 왕국의 일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마음에 당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의에 대한 사랑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오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셨나이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알게 된 시편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배웠고 우리 주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실체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미덕에 대한 열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더 큰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용기를 내어 충실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각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아멘,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세션 28, 시편 편집입니다.